

되어지는 선교 시스템

사도행전 8:26-36

전경우 선교사님

1. 세부 선교 보고

(1) 세부 선교의 시작

나는 전복 김계에서 담임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교를 다녔다. 목회학 시간에 최정웅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답을 얻었다. 그 답을 가지고 김계에서 전달할 수 있었다. 안수를 받기 전에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지 않고 나왔다.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에 간지 12년 정도가 되는데, 선배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햇병아리이다. 바기오로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인 사역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기오에서 세부로 과송을 받으면서, 많은 마닐라 선교사님들이 세부에 캠프를 많이 해 놓으셨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세부는 필리핀 최초의 수도였다. 마젤란이 세부에 들어와서 세부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 그런데 스페인이 물러가고 일본, 미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으면서 수도가 마닐라로 바뀌었고, 세부는 관광 특구가 되었다. 그 작은 섬에 400만 명이 살고 한인만 2만 명이 산다.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바기오에 있을 때는 세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세부 한인들 중에 다락방 멤버들이 하나도 없다. 혹시 연결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비행기로 한 시간, 배를 하루 타고 세부로 왔는데, 아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선교사님, 아무도 없는데요?" 했더니, 다 한국으로 철수했다고 한다. 세부에 캠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가면, 세부 현지인 목사님들이 다 팔고 없애 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가 많고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했다. 그래서 간 것이다. 안테나만 세우면 한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갈등을 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으로도, 바기오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았다. 분명히 세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개인을 준비하셨다. 왕복 7시간 거리에 한 사람이 만나졌다. 세부섬 중에서 우리와 반대편에 사는 분이였다. '이래도 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다.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영어를 하게 하셨다. 영어를 통해서 3중 통역을 해야 했다. 3중 통역을 하면 메시지를 하다가 까먹는다. 그러나 세비아노를 하지 않으면 시골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한 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곱 시간을 가야 하는데, 한 시간 강의조차도 한국어 20분, 영어 20분, 세비아노 20분이다. 첫수와 같았다. 돈도 너무 많이 들었다. 그게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이 사역을 지속했다. 5년 동안 지속한 결과, 한 사람의 현지인 목사가 마음 문을 열었다. 왔다갔다 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만났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일곱 시간 운전할 때 계속 그 기도를 한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 갈 때 그냥 가는가. 흑암 꺾는 기도를 할 것 아닌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준비될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쓰신다. 지금도 쓰고 계신다.

(2) 세부 선교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게 되었다. 매주 한 번, 한 군데 전도학교를 지속했다. 똑같은 메시지만 하는 것 같은데 들으면 힘이 난다고 했다. 그게 다락방의 능력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을 계속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200, 300명의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나 동기를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왜 당신은 밤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느냐. 우리가 커피도 주고 주지 않느냐 하더라. 그래서, "나는 가난한 선교사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다. 그래서 나는 답 주는 사람이다." 다 떨어져 나가고 30명이 남았다. 이들이 필리핀전도선교협회(PEMA : Philippines' Evangelism and Mission Association)를 만들었다. 회장이 있고, 나는 메신저다. 아들과 두 딸이 여기에 통역자로 쓰임받고 있다. 영어가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덕분에 자녀들이 현장을 보게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국어고, 현지인들은 영어로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니까 끝나고 사진을 찍으면 우리 아들딸과 찍더라. 나는 인기가 없다. (웃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이 현지인을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한다. '준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각본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오금을 살릴 시간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안 하려고 해도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축복이다.

세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마닐라의故 장필성 선교사님이 현지인 사역을 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현지인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현장을 보면 세부에도 대어섯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전부 교회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안 돼서 쫓겨나오는 사람, 사업을 해서 돈 벌기 위해 온 사람, 전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복음이 아니니까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나오고 나오고 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 팀 사역을 하면 당장 교회에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지인을 보게 하셨다. 한인은 한인에게 말하고, 선교사는 현지인을 살려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돌아 보니까 너무 행복했다. 나같은 사람의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동역자로 만들었다. 처음 시작했던 이분이 필리핀전도선교협회의 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현지인 목사님들이 400명이 모여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초청을 받고 가서 메시지를 했다. 복음 하나가 얼마나 행복한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자녀의 확

신과 다섯 가지 확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기도한다. "메시지할 때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양철 지붕에 빗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메시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다. 한 번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할 때는 비가 딱 그쳤다. 메시지 끝나면 다시 비가 온다. 그게 선교사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신다. 다락방 전에, 지교회 전에, 팀 사역 전에 하는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과 진짜 통하는 기도다.

2. 되어지는 선교 시스템

오늘 제목이 <되어지는 선교 시스템>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넣으면 된다. 나는 설교가 아니라 보고하러 왔다. 여러분이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 구역, 신앙을, 다락방을 넣어라. 중요한 것은 되어지는 시스템이다. 왜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이다. 이렇게만 전도가 되면 얼마나 쉬겠는가? "야, 가라."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되면 되지 않나? 사도행전 8:26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라고 했다. 갔더니 권세자가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다.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입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한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전도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 속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면 무엇을 못 주겠는가. 감사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염려, 근심, 걱정, 사랑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겠는가. 전부 감사다. 여러분, 되어지는 선교 시스템의 핵심은, 왜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세부를 맡기셨는데, 세부라는 현장에서 목사님을 만나 보니까 전부 가난했다. 예수님도 처음에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시간값이 되면 하나님은 차근차근 문을 열어 가신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하신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치유하신다."

(1) 사도행전 1:8은 우리 다락방 멤버가 다 알고 있다. 세계복음화다. 오직 성령충만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나 현실은 땅 끝이 아니었다. 사마리아가 아니었다. 류목사님이 늘 말씀하신다. 사각지대, 재양지대다. 우리는 황금어장만 생각한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다. 자신이다.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김경과 감사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 이게 기도제목이다. "하나님, 오늘도 현지인들이 나 같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빌립이 묻는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게 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세부라는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임을 오늘 보고하러 왔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란다. 다 돌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세부에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회당 전략을 깨닫게 하셨다. 회당, 즉 교회에 다 있었다. 아무 것도 없는 선교사인 나에게 첫 번째 주신 현장이 회당이었다. 교회당을 정복하면 된다. 그러면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목사다. 목사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 하면 끝이다. 그래서 일곱 시간을 가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 마인드가 열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더라. "들어 보."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교회의 문을 연다. 은혜 안 받으면 오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은 들을 자가 있다는 증거로 다 보여 주셨다.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2) 아무도 사마리아, 땅 끝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스테반이 순교하게 하셨다. 그 사건으로 사도행전 8:1, 흠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한다. 문제가 축복의 기회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각이다. 1-3절을 보니까, 다 핏박을 주면서 흠어지게 했다. 이때 빌립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마리아로 갔다. 8장의 본문을 보니까, 6절을 보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불신 현장, 재양 현장, 사각지대,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우리는 잘 안 듣는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서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가문의 저주, 재앙, 고통, 운명, 사주팔자가 치유된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영육이 치유된다.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힘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한다. 어떻게 하는가? 집중훈련이다. 한국에서 하는 그대로 한다. 여러분이 보내 준 세부 언어로 번역된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로 복음을 전한다. 1박 2일 동안 그것만 가르친다. 1대 1로, 팀으로 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가니까 되더라. 영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더라. 영접 300명 해 보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해 보니까 영접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에게 메시지가 정립되었다.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목사님들이 서서히 눈을 열게 되었다. 30명의 목회자를 집중훈련을 했다. 15쌍의 부부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훈련비를 주지 않는데, 이 분들을 이 훈련을 할 때는 훈련비를 다 주었다. 그러면서 아내를 불렀다. 아내를 왜 불렀냐? 아내가 사역을 더 잘 한다. 가난한 목회자들이 에어콘 있는 방에서 자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에어콘 있는 방에 불러서 잠자게 해 주니까 너무 좋아한다. 그게 치유사역이었다. (웃음) 지금 세부의 시간표는 다락방 시간표다.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3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런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되었다. 어떤 분은 한 주에 다락방 17곳을 뒀다. 산에서 목회를 하고 4영리로 산에서 전도를 하던 분이였다. 와서 우리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싶어서 놀란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다. "당신의 교회에 가겠다."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하다." 교회가 수상이옥이었다. 갔는데, 메시지를 하기 전에 두려워서 못 가겠더라. 메시지를 하는데 칠판에 쓰려고 하니까 바닥이 흔들려서 겁이

나서 힘들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누가 헌신을 해서 협판을 헌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이 안 흔들리게 되었다. 몇 달 지나니까 또 누가 헌금을 해서 바닥이 시멘트를 발랐다. 이게 그들에게는 기적이었다. 사모님이, 자기는 목사님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힘들어서 너무 약해졌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귀부인이 되었다. 메시지 있으니까 어디든 담대하게 들어간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밤에 뭘 사러 나갔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한 목사님이 300명 영접을 하겠다고 밤 늦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아나운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한 시간이 딱 비어 있었다. 황금시간을 얻어서 이 목사님이 세부어로 계속 복음편지를 전하게 되었다. 5-6시가 황금시간이다. 피디가 복음을 이 시간에 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남편이 현장을 뛰면 사모님이 집에서 뽀세게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현장에 있으면 사모님이 뽀세게 기도하라.

그런 팀을 통해서 나는 전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가면 램프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 제자 목사들이 세워져 있다. 한국도 백 년 전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화는 한국인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30명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세부는 세부 목사님들에게 맡기고 나는 다른 섬까지 가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은 다락방 기본메시지밖에 없다.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부에는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전도학교를 맡기고, 가보지 않은 곳을 들어간다. 내가 직접 들어가는 전도학교는 13곳이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학교들이 되어지고 있다. 전도학교가 많다 보니, 전도학교마다 이제는 목회를 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약을 하다가 퇴소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현지인 목사님에게 감옥에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다. 출옥 후에 계속 이 목사님과 현장에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도 안 나온 이분을 전도인, 전도사로 안수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너무 잘 한다. 노회와 총회를 통하지 않고 감히 그렇게 했다. 현장은 목사도 필요하지만 전도자가 필요하다. 현장은 준비된 평신도가 필요하다. 내 직장에서 행복한 사람, 내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사도행전 1:8을 가슴에 품고,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세부복음화를 마음에 품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평일에는 그냥 다 돈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찬송은 두 시간 하고 메시지 때는 다 졸았다. 그런데 메시지로 힘을 얻으니까 투잡을 그만두었다. 복음만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장 문화가 변화되었다. 이게 문화개혁이었다.

(3)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가라. 그러면 더 큰 응답이 일어난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있다. 많은 정치인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영접한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고, 인기있는 시몬까지 영접시키니까 빌립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는가. 그런 빌립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다. “야, 가라. 너는 광야로 가라.” 이런 증거가 생겼는데 가겠는가? “에이, 하나님, 제가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유명한 박수무당도 살린 사람입니다.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빌립은 광야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갔다. 빌립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6:3을 보라. 교회 안에 꾀박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얼굴을 세울 때 세워진 사람이다. “은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또 빌립과.” 현장을 다 준비시켜놓고 사람을 준비하셨다.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러분이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아신다. 아시고 준비시켜놓으신다. 사마리아, 무당, 광야. 그 광야에 누가 있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권세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 나는 이것을 보고 알았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는데, 어떤 사람에게인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세부를 보니까 내가 준비한 게 없었다. 영어도 못 한다. 아는 사람도 없다.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 선교 보내 놓고 그 다음 날 묻는다. “영어 해 보세요.” (웃음) 한국 사람은 빨리 배우는 대가다. 무슨 하루만에 영어를 하는가. 12년 배워도 찢찢매는 게 영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을 쓰신다. 사도행전 1:8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릴 교회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최정용 목사님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다 집중했다. ‘아, 목회자는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김재 가면 안 된다. 목사님은 얼마나 부드럽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른다. 그런 교회에 오니까 참 떨리고 감사하다. 정목사님은 친한데, 너무 바빠서 가까이 못 지낸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이 하나님의 소원이 줄 믿는가? 램프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는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들이 도망간다. 이상하다고 얼굴에 너무 크게 씌는 이 걸 때문에 나는 자살도 생각했었다.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서로 싸웠다. 나 때문에 싸웠다. 빨리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장모님이 반대하셨다. 내가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이런 고통을 안 당하도록,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 얼굴을 봤다. 혹시 점 있을까봐.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아무도 점 없다. 여러분은 내 마음을 모를 것이다.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주에 있는 15층 빌딩에 올라갔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는가. 아버지 말대로,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해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너무 높은 것이다. 그래서 못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사단이 조금만 나를 잡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그래서 안다. 외모?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도 요즘 당황하신다고 한다. 얼굴이 너무 달라서. 천국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웃음) 내가 어저더 서울에 오면 얼굴들이 다 비

슷하다. 놀랄 정도다. 아무리 얼굴을 바꿔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시켜 놓았다.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현장을 보여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나는 자신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꼭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게 하셨다. 언약이 전부 다가 되도록 훈련시키셨다. 여러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4) 전라도 사투리로 세부렀다 하는 말이 있다. 구원받은 영혼이 세부러 버린 곳이 세부다. (웃음) 이게 성경이다. 사도행전 13:48,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세부렀다. 세부다. 세부를 안 갔으면 나는 정말 후회했을 것이다. 세부는 내 땅이다. 아무도 다락방 멤버가 없다. 2만 명 한인 중에 다락방 멤버가 없다. 내 땅이다. 그래서 착각했다. 이런 선교 사역이 맞는가 고민했다. 그때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당전략에 집중해 왔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근본 메시지가 증거되는 전도학교를 깔게 되었다. 지금도 깔아가고 있다. 전도학교를 깔고 보니 사람들이 바뀐다. 듣다가 적는 단계로, 적다가 이제는 합심기도하는 단계로 바뀌어간다. 그러면 다음 단계, 전도신학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신학교로 또 바뀌어 갈 것이다. 평신도를 많이 세울 것이다. 은행 매니저 한 사람과 포털을 하는데, “선교사님,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야간전도학교가 세워졌다. 한 명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인다. 여러분 한 사람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전도학교를 까니까 지역의 흑암의 역사가 보인다. 그렇게 메시지를 해도 못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되니까. 그런데 계속 가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 잃어버린 전도학교, 잃어버린 다락방을 회복해야 한다. 근본적인 메시지가 약하니가 흔들리는 것이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다. 류목사님의 기본메시지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팀 사역 단계로 들어간다. 교회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팀 사역자. 그 사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문도, 무당 문도 열고, 광야라는 현장 문도 열고, 기이사라까지 가게 하신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라는 바울을 변화시켰다. 지역과 현장과 거기 있는 제자들. 사람들이 자꾸 개 두 마리를 키운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이다. (웃음) 이것은 불신앙이 된다. 현장 문을 막는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만나라.” “주여, 내가 보니.” 선입견이다. “그렇다고 하더이다.” 편견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라, 이 사람은.” 사도행전 9:15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장 가서 그리스도 3직, 12가지 인생 문제, 7가지 축복만 말해도 한 시간이 간다. 그런데 정리를 안 한다. 현장 가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안 되어 있다. 선입견, 편견을 바꿔라. 개를 바꿔라. (웃음) 발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 사람에게 있다. 아메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방송국이 열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가야 할 다른 섬까지 이 전파가 간다. RUTC방송과 연결해서 해 보려고 한다. 시장님이 땅을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정목사님과 복지 쪽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내게 하나님은 세부라는 땅을 주셨다. 금요일 때, 새벽 때 간절히 하시는 그 기도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다. 정말 세부라고 했을 때, 세부렀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 (웃음) 그 현장을 진짜 보셔야 한다. 그냥 기도하는 단계,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 현장에 방문해서 기도하는 단계가 있다. 여러분, 진짜 그 나라를 품는다면 가보셔야 한다. 아멘이 적다. (웃음) 설교를 더 해야 되겠다. (웃음)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선입견, 편견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거룩한 착각이다. 사단에게 속는 착각 말고 하나님께 속는 착각을 하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부가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3. 기도제목

2018년에는 이런 기도를 한다.

(1) 현지인 램프들 중에서 통역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한다. 10학년 학생들을 세 명 선발해서 5년 정도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한다. 현지에 어학당이 있다. 현지에서 2년, 한국 총신에서 3년을 가르쳐서, 신학의 내용을 아는 통역자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를 세부어로 바로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필리핀의 따갈로그어는 세부어와 전혀 다르다. 말이 서로 너무 틀리다. 세부가 있는 곳이 비사야 지역이다. 이 지역을 책임지는 통역선교사를 만들어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기도해 달라.

(2) 둘째는 역선교다.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 여성들이 외국 영어권 국가에 가정부로 많이 가 있다. 그 영어 되는 가정부를 통해서 미션 홈 전략을 하도록 기도한다. 나는 행복하다. 아무 것도 없어서 불행, 원망을 많이 했다. 본부 사람 한 명만 제발 하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부 왔을 때 아무도 없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오시게 되었다. 총무단이 대만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되니까 대신 세부로 다 오셨다. 오셔서 사역을 엄청 잘 해 주셨다. 일 년 뒤에 또 와 주셨다. 그렇게 열려진 현장을 다시 추스르고 있다. 기도가 안 되는가? 메시지가 없는가? 아니다. 개 두 마리 때문이다. 오늘 멋진 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란다. (웃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라. 교회를 발견하라. 특히 중직자 여러분, 직장에서 최고의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되어지는 선교, 되어지는 개인, 되어지는 구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선교지는 여러분의 기도만 있으면 산다.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산다. 세부라는 이 귀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숨겨져 있는 제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